장흥군,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프리미엄 김 생산 탄력

김 생산·양식·가공·유통 등 총 50억원 예산 지원
"무산김, 세계 시장서 친환경 김 대표 브랜드로 육성"

장흥군이 해양수산부 '2024년 제2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은 총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6개 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전국 최대의 친환경 양식장을 보유한 장흥군이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친환경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다.

장흥무산김은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친환경 김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착한김'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ASC-MSC 국제 친환경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친환경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종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전국지자체 중 유일하게 특허 출원한 김 종자 장흥 흥초1, 2, 3호를 지난해 연말부터 어민들에게 공급하여 시험양식에 들어갔다.

장흥 흥초 1, 2, 3호는 성장 상태가 빠르고 양호하여 어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김 사상체를 구입 공급해왔던 김 종자를 대체하여, 지역에 적합한 김 종자의 안정적인 보급이 가능해졌다.

군은 앞으로 수출에 적합한 마른김 생산을 위해 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김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무산김이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 김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무산김의 경쟁력 강화로 '김 수출 10억불 달성'의 정부 목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땅끝해남에 봄 활짝…달마고도 힐링축제 대박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 주제 힐링 걷기 축제 마련

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해남의 명품 인생길 달마고도에 봄길이 열렸다.

해남군은 지난 23일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2024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달마고도 힐링축제는'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을 주제로 봄의 숲길에서 쉼과 여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걷기 축제로 마련되었다.

축제는 둘레길 걷기를 위한 여행객이 아침 일찍부터 몰린 가운데, 축하공연을 비롯한 개막식과 함께 소원 나무심기, 숲속 버스킹 등이 걷기길 곳곳에 마련돼 전국에서 찾아온 트레킹족들을 반겼다.

또한 노르딕워킹, 다도, 명상, 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해남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이날 축제에는 남파랑길의 시작점인 부산에서도 달마고도를 걷기 위해 500여명의 걷기 동호인들이 방문하여 남도 명품길의 진면목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달마고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중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지게로 돌을 지어 나르고 사람의 손으로 한땀한땀 정성스레 선조들이 다니던 옛길을 복원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가장 걷기 편한 걷기 길로 조성했다.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색다른 걷기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완연한 봄기운속에 전국의 걷기 여행객들이 찾아와 성료됐다"며"앞으로 사계절 내내 펼쳐질 축제 맛집 해남의 다양한 축제로 다시한번 찾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진도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
총 사업비 11억 5,000만원 확보…부족한 인력난 해소 기대

진도군이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7억원을 포함해 총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농번기철마다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농가에 인근 도시지역 구직자를 발굴하고 연결,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일자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목포 등의 인근도시 구직자가 각각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을 사전 협의하고 연결을 시켜준다.

주요 지원 사항은 농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중식비 1만 2,000원, 구직자 1일 교통비 1만원과 숙박을 할 경우 1박당 숙박비 2만 5,000원, 상해보험 가입, 소모품 지원 등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한국수산벤처대학 수료·입학식 성료
완도군-조선대-한국수산벤처대학 총동문회,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 3월 20일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국수산벤처대학의 제16기, 17기 수료식 및 18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료생 69명, 입학생 54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수료생과 입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면서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등 신 해양산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완도군과 조선대학교, 한국수산벤처대학교 총동문회는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핵심 자원을 활용한 글로컬 캠퍼스 구축 및 수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활성화 등과 기타 지역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청년 창업은 강진에서"
강진군, 청년 창업자에 2천만원 지원, 4월 5일까지 접수

강진군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가업승계 정착 기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투입해 5명 내외의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업승계 청년 정착기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800만 원을 투입해 5명 내외의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 청년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9~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만 19~45세 이하 본인과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이고 가업을 승계받은 지 경력이 20년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지원 접수는 4월 5일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